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지수 148p, 중고선가지수 16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지수는 148p(+0p, WoW), 중고선가지수는 168p(+0p, WoW)를 기록함. 지난주, 삼성중공업이 유럽선주로부터 7,000TEU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함. 납기는 2023년 3분기부터임. 대우조선해양은 MOL로부터 174,000CBM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함. 납기는 2024년임. (Clarksons)

## Seaspan strikes \$860m deal for containership newbuildings at SWS

Seaspan이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SWS)에 7,000TEU급 재래식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함. 총 8.6억달러규모 계약이며 2024년 인도예정임. (Tradewinds)

## 탱커 선주들 기델 언덕이 사라진다

탱커 선주들이 중국 수요에 기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000~2020년 중국 원유 수요는 13,800만bpd로 연평균 +5.5% 증가함. 중국의 석유수요가 연료에서 석유화학제품으로 옮겨간다는 점, 중국 독립 정유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요인이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탱커 인도 2022년에 집중

탱커 인도 지연으로 2022년 인도량이 한꺼번에 증가할 전망이다. 오는 11월, 12월 탱커 32척, 34,000DWT급 이상의 선박이 인도 예정이었지만, 인도가 지연되며 현재 11월, 12월 인도 신조 탱커 인도량이 한 척도 없음. 이에 비해 수요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 Samsung's late entry to newbuilding party could prove a winner, says Affinity

삼성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보다 뒤늦게 수주하며 강제가 상승에도 마진확보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도됨. 타사는 15,000TEU급 선박을 1.1억달러에 계약했지만 이번 CMA CGM 7,000TEU급 발주건의 경우 척당 1.2억달러에 수주함. (Tradewinds)

## Petronas evaluates bids for newbuild floating LNG FEED to EPC prize

말레이시아 Petronas는 8월 31일 마감된 FLNG FEED부터 EPC 계약 입찰을 검토 중임. 참여업체는 JGC, Saipem, Technip Energies 등으로 알려짐. JGC는 삼성중공업과, Technip Energies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한다고 보도됨. (Upstream)